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 FAX: (031)470-3116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살라!

<지난호에 이어서>

▶ 질문자4(男):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 회원입니다. 저는 제주지원 거사림 합장단을 잠깐 소개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불교계에 최초로 거사림 합장단이 지난 1월 26일 법형제를 중심으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제주문예회관에서 거행된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교 합장제에 보살 합장단과 혼성으로 참가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을 하는 뜻은 어디에 있으며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 스님: 음성공양으로 보통 찬불가들을 하는데요, 이런 선법가입니다. 찬불가와 선법가는 다릅니다. 찬불가는 일체 음파가 법망에 통하지 않지만 이 선법가는 통합니다. 통하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부르면 그것은 아주 영원을 하는 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달린 거니까 생각을 크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나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에 이득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선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 이 선법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판 데서 그렇게 선법가를 잘 지어서 법문으로 듣게끔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선법가를 여러분께서 한 곡 한 곡 부르실 때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 순간이 김으로 올라가서 불이 하늘을 두루 불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넓히는 게 지혜를 넓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버리지 말고 한다는 거, 또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살라, 이런 뜻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다는 말 없이, 내가 산다는 말 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에 허무한 생각이 좀 들고, 무상한 생각이 들고, 좀 고난이 심하면 살기 싫은 때도 있고,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있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가겠죠. 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응용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니!' 하고선 딱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화해됩니다. 화해되고 넓어지고 그대로 웃어지고 그대로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선법가를 요만한



그림 · 최주현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애잔탄하며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공부가 채 뭔지도 모르고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왔다가, 이제 조금 알았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다양하죠. 뭐,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각 지원의 여러분이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지원에 계신 분이 지금 나오셔서 질문했는데 그만들 하고 가신다면 그,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렇게만 하실 수 있다면... 법사 스님이 아까 '국어 짜다' 이런 얘기 했죠. 그런데 스님네들이 사는 데서는 짜면 그냥 물 타서 먹고요. 싱거운면 간장 타서 먹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죠. 그래서 살아나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해라 하는 겁니다. 전자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내 뜻으로 돌려라. 모두가 내 뜻으로 돌려야지 남의 뜻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일체제불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다. 어디에 가서 이 부처 저 부처 찾을 게 아니라 일체제불의 마음들이 전부 내 한마음에 있으니 내 한마음 속에서 다 용도대로 써라, 이런 겁니다. 일체 만물이 내 한마음 속에 들어 있으니 용도대로 꺼내 써라. 이렇게 간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구 공장에서,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는 죄가 있어서 미생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미생물로 나와서 성장을 해서 인간까지 와야 사람이 되니까요. 도리를 모르니까, 업보가 있

어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죠. 인간 하나가 불쑥 태어난다 해서 인간이 아니죠. 얼마만큼 해서 인간이 됐느냐? 즉 말하자면 축생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느냐? 또 저런 나무를, 목성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물에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느냐? 이 문제는 자기가 살아온 대로, 용도대로 주어진 거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못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못나게 나온 거는 자기가 일부러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못났으면 못

난 대로 나오고, 까지 등우리에서는 까지도 나오고 그렇게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이걸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람이라면 어떤 거를 알아야 되느냐?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진리를 추구해야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도리를 알아야만 우주 법계의 모든, 즉 말하자면 법망을 다 자유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법망에 걸림이 없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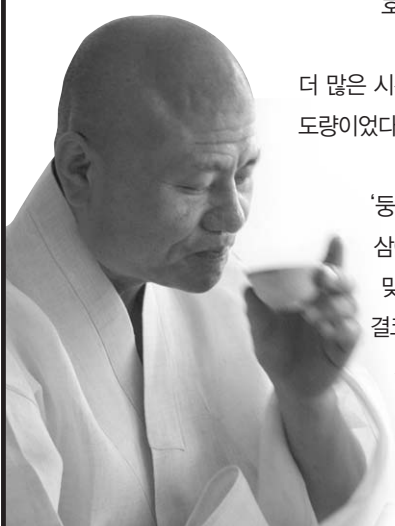
아무리 승려들이 못났든 잘못든, 일단 신도들이 볼 때는 그저 자기 주인공과 틀 아니게 바라. 스님네들만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모두 자기와 같이만 바라. 자기와 같이 보면 손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는데 꿈을 꾸었대요. 너무 짜들려서 살다 보니까, 꿈을 꾸었는데 조상들이 다 나타났대요. 그래서 '스님이 조상님네들도 돌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돌이 아닌데 뭐 그렇게 섬기시게 하고 그렇게 괴롭게 살게 하느냐?'고, 이러니까 조상들이 나왔다가 다 썩어 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서 그냥 연기처럼 해서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겁이 나 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연기처럼 해 가지고 저한테로 다 들어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니까?' 하고요. 그래서 '허허하...', 연기처럼 들어갔다면 네 영에다가 영이 연기처럼 해서 들어왔으면 그게 영이 몇 개나 되겠느냐?' 하니까 '영은 영이죠, 그냥.'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생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스님네들도 모두 그렇지만 다 가족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입산을 하러 오면 그거부터 물어보셨답니다. '너는 왜 한 집 짊어지고 왔느냐?' '전 하나도 가진 게 없이 그냥 왔습니다.' '너, 너의 식구들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느냐? 짊어지고 온 거 다 벗어 놓고 오너라.' 이력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떼어 놓고 해결을 하고 또 몇 달 만에 오니까 '아, 그것은 떼어 놔지만 재산 문서를 왜 죄 짊어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진정으로 공부하려고 들었는지, 돌아가서는 그 재산을 죄 그냥 배에다 싣고 바다로 나갔대요. 바다로 나가서 바다에다 다 집어넣으려고요. 있던 물품도 뭐, 그냥 전부. 그러니까 집에서는 식구 다 죽

21면으로 계속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 효종 스님의 가슴속에 묻은 남겨진 사연들...

동지속의 대화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동지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 삼아 수행하며 이어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는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준다.

- 현대불교신문 -



신국판 / 10,000원

현대불교 (051) 244-1251 (02) 2198-5151

삼존불 점안법회

귀의 삼보하우고 약사여래불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삼세 일체불 입석 삼존불 점안식을 아래와 같이 대법회를 하오니 공사간 다량하시더라도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라오며, 인연공덕으로 삼세 일체불의 대 의왕이신 약사여래 부처님의 불력과 신통력의 가피로 사부대중의 각기 소구소운 만사길일 속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일 시 : 2007년 11월 17일(음력 10월 8일) 약사재일 점안시간 :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경북영주시 평은면 지곡2리 87번지 용암산 고경사

사단법인 대한불교 본원종 경북교구본사

용암산 고경사 회주·종무원장 자광 합장 054)638-8886~7

* 오시는길 : 영주 IC 15분 거리, 서안동 IC 20분 거리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던진다면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